



김해공항 최장 거리  
부산~발리 노선...이르면 9월 취항

MONTHLY KOFA

# 코파의

# 잡지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18**  
2024/07



2025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 인니로 수입되는 연구관련 물품, 수입 관세와 세금 면제



과학기술개발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부문 중 하나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쇠다. 정부는 규제 기관이자 촉진자로서 지식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 장비,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 개발 목적의 상품 수입도 포함된다. 정부는 관세 및 소비세국을 통해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규정 200/PMK.04/2019에 명시된 대로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는 형태로 재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 및 소비세청의 홍보 및 세관 상담국장 은쩐 두디 기난자르는 이 조항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종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수입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의 물품 수입은 대학,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및 사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면 대학은 학장 이상의 공식 서명이 있는 신청서를 수입 예정 지점의 관세 및 소비세 지청(KPU BC) 또는 관세 및 소비세청(KPPBC)의 장을 통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 2급 공무원의 추천서 및 취득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보조금, 원조 또는 협력 제도에 따라 수입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기부증명서 및 협력 서한이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구매서류 사본과 국가예산(APBN) 또는 지방예산(APBD)으로 구매하는 경우 예산집행문서(DIPA)가 포함된다. 제3자를 통해 수입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입 관세 및 수입세(PDRI)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및 조항이 필수적이다. 신청이 승인되면 관련 관세 및 소비세 지청(KPU BC) 또는 관세 및 소비세청(KPPBC)의 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수입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됨을 명시하는 재무부령을 발행한다. 그런 다음 해당 물품은 장관령 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수입될 수 있다. 남부 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하사누딘 대학교(Unhas)는 연구 및 과학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지난 5월 23일, Unhas는 연구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수입세(PDRI)면제를 받았다. 은쩐은 “이 재정 혜택의 제공은 더 똑똑한 시민을 양성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관세청의 노력의 한 형태이며, 이 혜택이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될 과학 및 지식 개발 분야의 연구자와 학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 인니 수도이전 앞두고 ‘팀 코리아’신수도 찾아...”수주 기대” 현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2045년까지 이전



▲(누산타라=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회,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를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 건설사 및 관계자들이 신수도 부지를 찾아 사업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회,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일(현지시간)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칼리만탄섬 누산타라에서 한국 기업의 신수도 사업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팀 코리아, 신수도 합동 현장 방문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주택부와 함께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건설될 ‘신수도 탄소 중립 정수장’ 부지를 비롯해 신수도 주요 지역을 돌아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의상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회 회장은 “세종시를 건설한 노하우가 있어 신수도 사업에도 많은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과거 중동처럼 인도네시아가 우리 건설업계의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설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와 인구 집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를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도 이전 사업은 2019년 시작해 2045년까지 5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에서 열고 공식 수도 이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 연내 정부 부처 일부와 공무원 1만 2천명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320억 달러(약 44조4천억원)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의 80%를 민간 투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에도 지금까지 직접적인 투자 사례가 나오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신수도 이전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대형 사업인 만큼 우리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인니 섬유업계 “공급망 어려워” ... 확실한 지원 정책 요구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 협회(이하 APSyFI)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 내 여러 부문, 특히 폴리에스터(polyester) 공급망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레드마 기파 위라와스파 APSyFI 회장은 중국 폴리에스터 생산업체 통쿤 그룹(Tongkun Group)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제안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원인으로 비우호적인 사업 규제를 꼽았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변화무쌍한 규제 환경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레드마는 지난 9일, “특정 상



▲서부 자바 반둥 지역의 마자라야 산업 단지에 있는 직물 공장.2019.1.4 (사진-안따라/Raisan Al Faris)

황에 따라 더 역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제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규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규제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 사스미파 산업부 장관은 국내 패션 산업이 일반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몇 년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구스 장관은 10일 산업부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패션산업 부문이 2029년까지 연평균 4.26%씩 성장하여 시장 가치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섬유, 의류, 가죽, 가죽 제품 및 신발 부문에 96만 2천 명의 패션 산업 종사자가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산업은 전국적으로 160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국내 패션 및

섬유 산업의 예상 성장을 지적하면서 국내 섬유산업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견해를 일축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자국 섬유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아 업계가 수입품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는 말이 의도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신뢰지수(IKI)에 따르면 섬유 및 섬유 제품(TPT)은 지난 두 달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TPT 산업은 전년 대비 2.64%의 성장률로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2024년 1분기 업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0.19% 증가한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쳐 이 분야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니 루피아 가치 4년만에 최저수준에도...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 재정 악화 우려에 루피아 약세 속 금리 6.25% 유지

최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BI는 20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채권(RRP) 금리를 6.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BI는 지난 4월 환율 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6.0%에서 6.25%로 0.25%포인트 올린 뒤 2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번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BI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가 크게 하락해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최근 미국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1달러에 16,500루피아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2020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루피아는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정책 대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피아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루피아 하락의 원인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에 새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점도표를 통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1차례 인하로 수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무상 급식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30%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임기 중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대선에서 자신의 임기 중 아동 8,290만

명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프라보워 측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GDP의 약 2%인 연 450조루피아(약 3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탄은 루피아 약세가 “금리차나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잠재적인 재정 정책 변화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도스티라 사무국장도 “정부 재정 정책의 신뢰성이 약해지면 루피아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며 8월에는 루피아가 1달러당 17,500 루피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www.f1-logix.com

# 하늘길, 땅, 바닷길 그리고... F1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 인니 신수도 투자자에게 건축권(HGB) 형태 토지권 부여하겠다는 정부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사진=폼빠스닷컴/Sna Rika Sri Rahayu)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투자자들에게 건축권 형태의 토지소유권을 곧바로 부여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폼빠스닷컴이 8일 전했다.

신수도청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잠재적 신수도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도 누산따라의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허가, 사업 용이성 및 투자권의 제공에 대한 2023년 정부령 12호에 따라 투자자들은 관리권(HPL) 토지 위에 경작권(HGU) 또는 건축권(HGB) 형태의 기한이 정해진 소유권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관리권(HPL)이란 국유지를 정부가 공공 또는 민간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기에 앞서 특정 정부 부처 또는 해당 부처 산하의 국가자산관리기관(BLU)에게 해당 토지의 관리 책임을 위임한 것을 말한다. 즉 관리권(HPL)이 설정된 토지의 기본 성격은 국유지이며 현행법 상 관리권(HPL) 토지 위에 경작권(HGU) 또는 건축

권(HGB)을 설정받아 민간업자가 그곳에 아파트나 호텔 또는 상업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속이 가능한 일반 소유권(HM)으로 토지소유권 형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라는 기본 속성은 계속 유지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건축권(HGB)의 경우 BOT 또는 BTO 형식으로 건축 및 사용을 통해 수익활동을 한 후 건축권(HGB)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나 갱신이 되지 않으면 건축권(HGB) 소유자가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바수끼 장관이 지난 7일(금)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수도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건축권(HGB) 상태로 주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는 아파트나 몰 건축을 위해 민간이나 해외 투자자가 관리권(HPL) 상태로 토지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각종 구비서류들을 챙겨 다시 건축권(HGB) 형태의 소유권을 신청해 발급

받아야 비로소 토목 및 건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신수도 투자의 경우엔 관리권(HPL)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예 국유지에서 곧바로 건축권(HGB)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원래의 토지형질에서 건축권(HGB)로 소유권 형태를 변경시키는 시간적, 금전적 노력을 절감하게 된다.

바수끼 장관은 관리권(HPL) 기반의 건축권(HGB) 보다 국유지에서 곧바로 건축권(HGB)을 발급하는 것이 은행 대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정부청사 역시 관리권(HPL)이나 일반토지소유권 증서(SHM) 기반의 건축권(HGB)이 아니라 국유지에서 곧바로 건축권(HGB)이 발급된 토지라며 사례를 들었다.

관리권(HPL) 기반의 건축권(HGB) 소유권 토지의 경우

은행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일반 토지에 비해 매우 적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투자자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대개의 경우 은행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바수끼 장관은 국유지가 곧바로 건축권(HGB) 토지로 전환될 경우 이를 기반한 은행거래가 가능하다(bankable)고 시사했는데 실제로 국유지 기반 건축권(HGB)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유지 상태에서 건축권(HGB) 소유권 증서가 곧바로 발급되는 규정은 대통령령의 형태로 마련될 예정이다.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신수도) 토지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사회영향처리(PDSK 플러스)' 라는 제목의 또 다른 대통령령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사안은 아직 수용단계에

있는 신수도 부지의 2,086 헥타르 문제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아직 91가구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곧 이주보상금을 받고 소개될 예정이다.

바수끼 장관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단층 주택들을 지을 수 있으며 토지 용도를 공원 부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축권(HGB) 소유권이 발급된다 해도 해당 토지의 기본 성격이 국유지임은 변함이 없어 건축권(HGB)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소유권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토지에 지은 건물들을 그대로 둔 채, 또는 원상태로 복구한 후 국가에 반납한다는 원칙 역시 변함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폼빠스닷컴/기사제공=배동선 작가]

## 카카오뱅크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공식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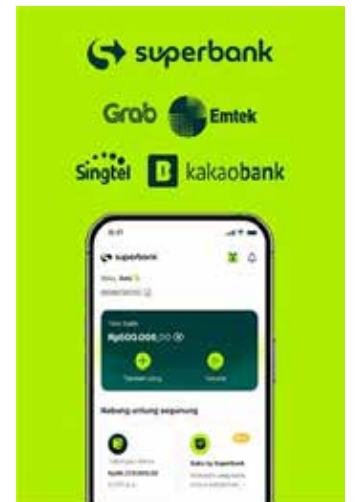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처음으로 해외투자를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앱 '그랩'과 현지 최대 미디어 기업인 '엠텍', '싱가포르텔레콤'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그랩과의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슈퍼뱅크에 10%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슈퍼뱅크의 상품과 서비스 기획, 개발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만의 모바일 금융 기술 역량과 이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금융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슈퍼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4년 기준 Rp 2,978,764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sup>2</sup>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munscb.com, muns33@gmail.com  
[www.muns.id](http://www.muns.id)

# “길에 시신이”...폭염 속 사망자 속출한 성지 순례길

## 순례객들 “폭염 속 의료 지원 등 부족” 이집트 정부, 성지순례 여행사 면허 박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이슬람의 제1성지인 카바 신전. [위키백과]

“사람들은 너무 많고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거의 수백 미터(m)마다 시신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하지) 기간 1천1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염 속 인파에 대비한 준비가 미진했다는 순례객들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지에서 순례객들을 보호할 의료진이나 기본 시설, 물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22일 보도했다. 21일 사우디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지라르 알리(40)씨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의료진이 부족했다”며 “그들은 최악 중 최악의 상황

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고, 그나마 야만 조치를 할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하지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흐마드(44)씨는 “집에 오는 길에 숨진 순례객들을 많이 봤다”며 “거의 수백 m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길에서 의료진이나 구급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으며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서 물을 배급할 때마다 순례자들이 즉시 물려들었다”고 했다. CNN은 하지 기간 부모를 잃은

한 미국인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다. 사리다 우리 씨의 부모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평생의 꿈이던 성지순례를 떠났지만 메카의 아라파트 산에서 실종됐다고 한다. 그는 이후 사우디 제다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부모가 지난 15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인은 열사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씨는 여행사가 성지순례에 필요한 적절한 교통수단이나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물품도 부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로, 매년 이슬람력 12월 7~12일 치러진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하지 기간이 여름과 겹치면서 폭염으로 심혈관 질환, 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집계된 공식 사망자 수는 약 500명이지만 외신들은 실제 사망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AFP 통신은 올해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순례객 사망자를 1천 126명으로 집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망자 수를 1천170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사망자 수 200여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사망자가 폭증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성지순례 여행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모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는 하지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박탈하고 메카 여행 불법 알선 혐의로 여행사 관리자들에게 대한 검찰 조사를 명령했다. AFP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658명이 이집트인이라고 아랍 외교관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 김해공항 최장 거리 부산~발리 노선...이르면 9월 취항

에어부산 운수권 확보 후 현지 공항 사무실 개설 준비



▲에어부산 A321neo 항공기 [에어부산 제공]

김해공항에서 최장 거리인 부산 발 발리행 노선이 이르면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9월 초를 목표로 부산~발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 결과로 확보한 국내 지방 공항~인도네시아 운수권을 에어부산(부산~발리), 티웨이항공(청주~발리)에 배분했다.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발리행 운수권을 확보한 에어부산은 당초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운수권 배분 2개월 만인 7월 말 취항을 목표 준비했다. 하지만 현지 법인 설립, 공항 사무실 개설 등 관련 절차 준비에 시간이 걸려 9월 초에 취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는 한 번에 6천km 이상 운항이 가능한 에어버스사 A321 네오와 A321 네오 LRI 투입된다.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은 220명으로 주 4회(월·수·금·일) 부산에서 항공기가 이륙한다. 항공권 예매 가능 시점은 미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항로로는 5천 389km를 비행한다. 부산~발리는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노선

중 유일하게 5천km가 넘는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노선은 비행 시간 기준 7시간 이상, 비행 거리 기준 5천km 이상 노선을 말한다. 지방국제공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김해공항은 2012년 일본 경유 미주 노선이 단항되고 2014년 유일한 유럽노선이었던 루프트한자의 부산~뮌헨(인천 경유) 노선도 운항을 종료하면서 주로 동남아와 일본, 중국 노선 위주로 운항해 왔다. 여태껏 김해공항을 통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였다. 부산에서 약 4천500km 거리다. 김해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영남권 지역 주민들은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려면 인천국제공항 등을 거쳐 갈 수밖에 없었다. 에어부산은 발리 노선과 함께 운수권을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노선은 연말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한국항공공사는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확대와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 노선 확대를 위해 부산~터키(이스탄불), 부산~폴란드(바르샤바) 신규 노선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PRIME SPA AND HEALTH CARE CLUB

## 산소(O<sub>2</sub>)같은 사우나!

쾌적함과 청결함은 사우나의 기본입니다.  
PRIME SPA 는기분을 잘 지키는 상쾌한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사우나와 헬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충전 및 휴식공간입니다.



Karawaci Lippo Maxbox Mall, Jl. Boulevard Jend. Sudirman No. 1110, Bencongan, Kec. Kel.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Tel. 021 3893-4005 WA. +62 8224-900-3560  
E-mail. primespa001@gmail.com



# 주4일 근무제, 인도네시아에서 실현 가능할까?



▲퇴근하는 자카르타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축 근로일정(CWS)’이라는 이름으로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17일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주 4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단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3월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금요일을 쉬면서 3일간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에릭은 이 프로그램이 한 달에 두 번만 이 옵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매주 금요일이 휴무일인 것은 아니며,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 4일 근무제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직원 복지 차원의 이점을 강조했다.

가자마다대학교(UGM) 거버

넌스 및 공공문제연구소의 아리프 노비안토 연구원은 근무 일수를 줄이면 직장인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프는 조직의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이 제도의 유용성은 매우 분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 4일 근무가 정신 건강과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 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실시한 주 4일 근무 시범프로젝트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성공적이었으며,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에코 리스피안토 부소장은 주 4일 근무제가 일부 업종에서는 특혜가 될 수 있으며, 재능있는 인재들이 국영기업에서 일하도록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는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힌 유연한 일 자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성이 일본, 한국, 심지어 이웃 말레이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인도네시아는 주간 생산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더욱 뒤처질 수 있다고 예고를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고 사회에서 근무에 대한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공휴일 수는 노동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시아 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2023 데이터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2021년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에 1인당 미화 26,300달러를 기여해 아세안 평균인 27,800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는 “관광업이나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이 공휴일이 많으면 좋을 수 있는 특정 업종이 있지만 대체휴일(cuti bersama)로 인해 직원들이 휴일을 많이 쓰게 되는 업종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 전후로 정부에서 지정한 대체휴일(cuti bersama)은 공공부문 직원들은 이러한 추가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의 불 하잔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늘려야 하는 것은 매일의 생산성이며,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생산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고, 생산성 수준이 높다면 일부 선진국처럼 주 4일 근무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영은행이 있는데 일주일에 4일만 영업을 해도 괜찮은지? 오히려 싱가포르를 주식 시장과 동기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더 일찍 당겨 조정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니 법무장관, 이중국적제도 ‘인도 벤치마킹’ 제안



▲자카르타 시내 도로를 걷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아순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의 이중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의 접근법을 차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해당 접근법이 인도네시아로 귀국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 인권, 안보 이슈를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에 지난 12일 참석해 디아스포라들에겐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담임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평생 복수입국비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을 가진 아동은 18세가 되는 해에 어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야순나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1928년 10월 28일 청년의 맹세를 비롯한 역사적 사건에 그 철학적, 이념적 기

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조국, 인도네시아. 하나의 국가, 인도네시아.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라는 청년의 맹세 속 한 문구를 조명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중국적을 얻으려면 청년의 맹세의 수정분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농담을 곁들였다.

이에 앞서 루훗 뽀자이판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디지털 기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 국가의 인재풀을 넓히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아르잔드라 따하르 전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자신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아르잔드라는 2016년 7월 16일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곧 이중국적 문제가 드러나 같은 해 8월 15일 해임됐다. 그는 이후 미국 국적을 버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재확인한 후인 2016년 10월 16일 다시 공직에 임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부처 차관으로 내려앉은 자리였고 조코위 대통령의 초선임기가 끝나는 2019년 10월 20일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AL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동포와의 대화’ ...

국내 체류 동포도 정책 대상이기철 청장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외동포청이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재외동포청은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본청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동포 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동포청의 그간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함께 더욱 성장하고 글로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재외동포청은 든든한 울타리로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 동포,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광 동포, 한국에 정착하고 싶지만 내국인의 시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동포 등이 각자의 사연과 요청 사항을 이야기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의 교과서 수록을 추진 중”이라며 “재외동포청의 정책 대상에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CJ대한통운 인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동포는 동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0개 지사를 운영하는 동포기업 PREMIA TNC의 대표는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동포기업들이 많은데 인턴십 횟수가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이 청장은 “청년들의 해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인턴십을 개발·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려의 한 동포는 국적회복 심

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국내 체류 시 생계·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

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포들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적회복 가능 연령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65세면 은퇴할 시기라서 국적을 얻어도 한국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허용연령 하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해외진출 지원 요청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동포청은 매년 ‘세

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국내 외에서 순환 개최해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류 기회와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네덜란드한국학생회 회장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을 완료할 수 없을 때가 많으며 시급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와 국내 계좌가 없어도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데일리인도네시아]

##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경제 향후 2년간 꾸준히 성장 전망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향후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GDP에 큰 기여를 해 온 가계 지출과 선거 관련 지출은 2024년 1분기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인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5.11%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적으로 5%, 2025년과 2026년에는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망은 올해와 내년엔 4.9%, 2026년에는 5%로 예상했던 세계은행의 이전 예상치보다

높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경제가 공공 소비와 투자 회복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무역 조건 악화로 인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와 지정학적 충격 등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위험을 지적하며, 이는 이미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외엘 만수르는 기자회견에서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기준선(전망)은 정책의 연속성, 특히 투자 촉진과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정한다고 말했다.

만수르는 최근 전망이 정부 지출 증가로 예상되는 공공 소비의 큰 기여를 가정한 반면,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규칙이 투자를 유치

하고 인도네시아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는 10월에 취임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무상 급식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40% 미만에서 50%로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 계획을 부인했다. 10월까지 예정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경제 목표에 대한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재정 정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톱슨 목금형 (톱슨발형)

##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관광세 도입 4달만에... 인니 발리, 50달러로 5배 인상 추진

“관광세 올려 수준 높은 관광객 받아야” ...  
제대로 확인 안 해 40%만 납부



▲자료사진=발리 관광청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가 관광세 도입 4달만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발리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리 주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발리 관광세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크레스나 부디 주의원은 미화 10달러(약 1만

4천원) 수준인 발리 관광세가 너무 싸서 발리를 값싼 관광지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를 50달러(약 7만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리에서 벌어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추태들에 대해 말한 뒤 “발리를 찾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현지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세를 올려 늘어난 수입은 발리주 교육과 보건 부문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지 언론은 발리 관광세를 올리려면 주의회에서 지방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며 발리 주지사도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발리주 정부는 관광세가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며 관광세 납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세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발리에 도착한 외국인은 약 220만명이지만 이 중 40%만 관광세를 납부했다며 상대적으로 국제선에 비해 국내선 공항 점검이 느슨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발리에 도착할 경우 15만루피아(약 1만3천원)의 관광 기여금을 걷고 있다.

웹사이트(lovebali.baliprov.go.id)나 스마트폰 앱 러브 발리(love bali)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 등으로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를 받아 발리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도 시 이를 제시하면 된다. 외국인이라도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유자, 항공 승무원, 장기체류비자 소유자(KITAS·KITAP), 골든 비자, 유학 비자 등의 소지자는 면제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 나이키, 발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부츠 공개 킵초게도 착용했다.

나이키가 마사지 건 기기 제조업체 하이퍼아이스와 협업하여 발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부츠를 공개했다.

이번 부츠는 운동 선수들을 위한 것으로, 발과 발목의 근육 조직에 열을 전달하여 빠른 회복 및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부츠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본인에게 맞는 열과 압축 단계 설정이 가능하다.

해당 신발 테스트를 참여한 선수 중 유명 러너인 엘리우드 킵초게는 “올림픽 마라톤을 위해 훈련할 때 나이키 x 하이퍼아이스 부츠를 착용했으며, 훈련하는 동안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착용 소감을 전했다.

나이키 x 하이퍼아이스 부츠의 공식 출시 일정은 미정이나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Hypebeast

## 아식스 x 더블렛 스니커가 공개됐다



아식스와 더블렛이 협업한 스니커가 공개됐다.

더블렛의 2024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처음 공개된 해당 스니커는 아식스의 젤 카야노 20 모델에 더블렛의 브랜딩이 곳곳에 더해진 모습이다. 해당 스니커는 브라운과 베이지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구성됐으며, 토

밴프, 쿼터 부근에는 더블렛과 아식스의 레터링이 포인트로 더해졌다.

아식스 x 더블렛 스니커의 공식 출시 일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추후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Hypebeast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분드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y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 반등하는 '아디다스', 가라앉는 '나이키' 키워드 검색량 '아디다스' 11.2% ↑, '나이키는 -46.8%' 삼바, 가젤 등 스니커즈 연이어 히트... 의류도 인기



▲아디다스 삼바 & 가젤

글로벌 스포츠웨어 양대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국내 시장 행보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해온 '나이키'는 주춤한 반면, 2016년 정점 이후 내리막을 걸어온 '아디다스'는 반등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분석에 따르면 '나이키' 키워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

기간 대비 46.8%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아디다스'는 11.2% 증가했다. 검색량의 격차도 줄어들어 이 기간 '아디다스'의 검색량은 '나이키'의 51.3% 수준까지 쫓아왔다. 작년에는 24.5% 수준에 불과했다. '아디다스'의 경우 삼바, 가젤, 저지 등 연관 키워드의 검색량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그 이

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스니커즈 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반등은 주목된다. 수년간 '나이키'에 밀려 이지부스트, 슈퍼스타의 별다른 히트 상품이 없었지만, 작년과 올해 삼바, 가젤, 스페셜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무신사' 등 주요 패션 플랫폼 내 '스니커즈' 카테고리에서 '아디다스' 제품이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삼바'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 작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40만 건에 육박, 스니커즈 단일 제품 기준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젤'과 '스페셜'도 작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류까지 확대돼 저지 트랙탑 등 시그니처 아이템들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올해 초 출시한 레더 소재의 트랙슈트 자켓은 출시 하루 만에 일부 사이즈가 품절되기 시작, 현재 '크림' 등 리세일 플랫폼에서는 2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나이키'는 2022년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덩크 로우' 이후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나이키'가 리셀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작년보다 대량의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서 희소성 등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디다스'의 글로벌 행

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디다스'는 2022년 말 새로운 CEO로 비에른 굴덴(Bjorn Gulden)이 합류하면서 변화에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올해부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소속에서 분리, 단독 마켓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AP 본부 소속일 때는 중화권 트렌드가 중심이 되면서 한국의 로컬 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컸다. 단독 마켓 분리 결과, 삼바 등 작년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오리지널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퍼포먼스 라인에서도 마니아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들이 확대됐다. 또 2022년부터 전 세계 12개의 'KEY CITY' 중 하나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로컬 문화와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확대, 젊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아디다스'의 올 1분기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8% 성장을 기록했다. 그중 신발 판매가 13% 늘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제로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좋은 출발이다. 특히 유럽(13.8%)과 한국&일본(7.5%)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눈에 띈다.

[출처: 어퍼럴뉴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 PT. BINTANG GLOBAL TEKNIK**  
Mutl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 나이키의 단기 재무 예측 이제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오픈하이머는 금요일 메모에서 Nike (NKE)를 '성과'에서 '성과'로 업그레이드하여 회사 주주의 목표 주가를 주당 110 달러에서 120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 투자 회사는 몇 분기 동안 Nike가 회사의 매출 성장과 이익 마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외부 및 내부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인식했습니다.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 나이키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현재 나이키의 주가 및 단기 재무 전망과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이키의 경영진이 제품 혁신과 브랜드 강화에 집중함에 따라 나이키의 주식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이머는 "나이키에 대한 우리의 업데이트되고 보다 낙관적인 관점은 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며, 나이키를 다시 한 번 최고의 대형주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investing.com]

## 나이키 에어 포스 1 로우 '레이저 오렌지' 공개 올 화이트가 올 오렌지로.



나이키가 에어 포스 1 로우의 새로운 컬러웨이 '레이저 오렌지'를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기존의 올 화이트 나이키 에어 포스 1 로우가 올 오렌지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스니커의 어퍼, 텅, 힐탭,

슈레이스는 물론 나이키의 시그니처 스우시 로고까지 오렌지 컬러웨이로 채색됐다.

나이키 에어 포스 1 로우 '레이저 오렌지'의 가격은 115달러, 한화로 약 16만 원이다.



### 가룻 1공장

위치 : 빠따루만  
대지 : 6,000 m<sup>2</sup>  
공장면적: 약 3500m<sup>2</sup>  
임대비용/년간 : \$10만불  
Add : Jalan Pataruman No. 47 ,  
Kel. Pataruman, Kec. Tarogong Kidul,  
Kab. Garut Provinsi Jawa Barat

용도 : 현재는 제조공장이나 주택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주택단지 개발 가능.



### 가룻 2공장

위치 : 수찌  
대지 : 25,000 m<sup>2</sup>  
공장면적: 약 10,000m<sup>2</sup>  
임대비용/년간 : \$50만불  
Add : Jalan Jenderal Ahmad Yani No. 380  
RT 04/ RW 01, Kel. Suci,  
Kec. Karangpawitan, Kab. Garut,  
Provinsi Jawa Barat

용도 : 현재는 제조공장이나 시내 교통요지에 위치해 쇼핑몰 리조트 등의 개발 가능.



## 전망있는 공장임대 합니다!



#### 가룻 및 짜야미스 지역 2024년도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함.  
노동인력 풍부, 봉제관련 경력자 구인 문제 없음

Kabupaten Garut : Rp 2.186.437  
Kabupaten Ciamis : Rp 2.089.464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박성필 : 0812-866-9990 (sp7\_park@naver.com)  
문성민 : 082-1212-96889 (willy.moon@kakao.com)



### 짜야미스 3공장

위치 : 짜야미스  
대지 : 13,000 m<sup>2</sup>  
공장면적: 약 8,000m<sup>2</sup>  
임대비용/년간 : \$25만불  
Add : Jalan Lingkar Selatan RT.020 RW.010,  
Kel. Ciharalang, Kec. Cijeungjing,  
kab. Ciamis , Provinsi Jawa Barat

용도 : 현재는 제조공장으로 컨테이너 진입이 용이  
어떠한 공장의 용도도 적합.



### 가룻 4공장

위치 : 조봉  
대지 : 15,000 m<sup>2</sup>  
공장면적: 약 7,000m<sup>2</sup>  
임대비용/년간 : \$25만불  
Add : Jalan Ibu Noch Kartanegara, Kp. Babakan  
Abid RT 003 / RW 022, Kel. Kota Wetan,  
Kec. Garut Kota, Kab. Garut,  
Provinsi Jawa Barat

용도 : 신축공장으로 산업지역에 위치, 모든 산업에 적합.



## 전망있는 공장임대 합니다!



#### 가룻 및 짜야미스 지역 2024년도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함.  
노동인력 풍부, 봉제관련 경력자 구인 문제 없음

Kabupaten Garut : Rp 2.186.437  
Kabupaten Ciamis : Rp 2.089.464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박성필 : 0812-866-9990 (sp7\_park@naver.com)  
문성민 : 082-1212-96889 (willy.moon@kakao.com)

## 새로운 키높이 신발이 탄생했다

평철판왕 2025 S/S 컬렉션에 등장한 어그 콜라보레이션 슈즈.



평철판왕 2025 S/S 컬렉션에 발 걸음 한 번에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을 듯한 '요상한' 형태의 신발이 등장했습니다.

이 슈즈는 어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으로, 고대 유물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에선 이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있는 토기를 연상시키는 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아웃솔이 큰 슈즈들은 발렌시아가나 이지 등에서 많이 보여 익숙해졌건만, 이렇게 밑창이 움푹 들어간 모양새로 세간을 또 놀라게 하는군요. 키높이 슈즈로는 이만한 게 없겠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쇼핑리스트에 꼭 올려두어야겠어요.

출시일은 미정, 에디터는 작

화감이 특히나 궁금하네요. 매우 편안할 것 같다가도 한편으론 걸기 어려워 보일 듯하기도 해요.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요?



###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네' 와 '예', '옴'

"아가, 이리 온."

"네, 곧 가겠습니다."

와 같은 문장에서 대답하는 말 '네'를 감탄사로 합니다. 부르고 대답하는 말이기 때문에 호응감탄사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라고 하지요.)

대답하는 말은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네', '그래', '응' 등 다르게 쓰입니다. 즉, 손윗사람에게는 '네'라고 하지만, 손아랫사람에게는 '그래' 또는 '응' 등을 쓰게 됩니다. (요즘은 '응', '옴', '넵'이라고 많이 쓰요.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말이지요)

전에는 '예'를 표준어로 삼고, '네'는 비표준어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말에서는 '네'



가 오히려 '예'보다 더 널리 쓰여 왔고 또 현재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에서 이런 말들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었다. '쇠고기'와 '소고기', '자장면', '짜장면'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한 것도 같은 예입니다. (황경수, <친숙하지만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서 발췌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 Korea Genuine Lubricants (윤활유)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 기어유 • 엔진오일(발전기) •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이사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 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아식스 젤 소노마 운동화. 뉴스1

## 나이키, 아디다스 제치고 대세된 아식스

프리미엄 제품 전환으로 1분기 이익율 54.5% 기록  
나이키(44.8%) 아디다스(51.2%) 앞질러

일본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가 회사 설립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주력 상품인 러닝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익률은 업계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넘어섰다.

18일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아식스의 시가총액은 약 1조7000억엔(약 14조8736억원)으로 최근 5개월 간 100% 두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중순 아식스는 올해 1·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한 267억엔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주가는 21% 급등했다.

1·4분기 판매한 상품에서 얼마 만큼 이익을 냈는지 보여

주는 매출총이익률은 54.5%로 전년동기대비 4.3%p 개선됐다. 비슷한 시기의 업계 투톱인 미국 나이키(44.8%)나 독일 아디다스(51.2%)를 앞지르는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뿐 아니라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식스는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해외 매출 규모가 80% 늘어났다. 특히 아식스 산하의 오니츠카 타이거는 인바운드(방일 외국인)의 인기가 높아 견조한 이익을 나타냈다.

2018년 취임한 히로타 야스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 기존의 저가 모델의 판매를 줄이고 프리미엄 러닝화의 마케팅에 주력한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회복 속에 증시에서도 아식스를 향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글로벌스탠더드 지수 구성 종목에 일본 주식으로는 유일하게 아식스를 추가했다. 또 이달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아식스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높였다. 아식스는 내년 글로벌 러닝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내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아식스의 제품을 착용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